

제5차 전자기록관리 연구포럼 결과 보고

우리 원 및 외부 기록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기록관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자기록관리 연구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

□ 포럼개요

- **(주제)** 지능형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기반 기술 이해
 - 발표 : 오효정 교수 (전북대학교)
- **(일시/장소)** '19.10.10.(목) 14:00-17:00/대전청사 중회의실1 (2동 207호)
- **(참석)** 전자기록관리과장, 원내·외 관심 직원 등 총 25명

□ 주요 질의응답

-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별로 이관, 관리되는 특성이 있어 지능형 기술을 기록관리에 적용하는 것이 더 용이함.
 - 특화된 기록이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, 전시 등에 더 유용
 - 위원회 자료, 시청각·웹·SNS 기록 등 기록자체가 다양한데 주제도 같아 이러한 유형의 기록물을 조합·분석 활용 필요
- 차세대 CAMS는 딥러닝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DB구조로 설계 필요
 - 메타여부에 관계없이 파일에 저장된 내용이 중요함. 포맷은 ODT이든 machine readable한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.
 - 언제든지 저장된 데이터를 조정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DB구조를 갖는 것도 중요

□ 향후계획

- 연구포럼 개최결과 및 발표자료는 홈페이지(혁신게시판)에서 공유

-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지능형 기술을 더 적용이 용이하다고 했는데,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. (안대희 연구관)
 - 대통령기록물은 특화된 기록이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, 전시 등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지능화가 더 필요함. (오효정 교수)
 - 또 하나는 국가기록원보다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이 더 다양함. 위원회 자료, 시청각·웹·SNS기록 등 기록자체가 굉장히 다양한데 주제도 같음. 그런 유형을 조합·분석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. (오효정 교수)
 - 국가기록원은 기관별로 기록물을 인수 받지만 대통령기록관은 동시대의 다양한 기록들을 한꺼번에 인수하므로 시대정보를 더 많이 볼 수 있음. (오효정 교수)
- '07년 CAMS 구축당시 DB구조는 필수 메타 기준으로 설계하였고, 메타의 필수여부는 기록 획득단계에서의 획득 가능여부에 따라 정했는데, 지금 발표 자료는 저희가 원하는 메타를 만들어 놓은 DB가 아니라, 딥러닝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DB구조를 가져야한다고 말씀하셨음.
 - 그렇다면 차세대 CAMS DB설계할 때 어떤 요소들이 딥러닝 혹은 머신러닝에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음. (이주광 연구관)
 - 이전에는 기록의 평가나 선별과정이 중요했지만 ISO 15489가 개정되면서 모두 전자기록 세대이므로 이미 전자기록시스템을 만들때부터 그 기록에 필요한 무엇이 평가가 되고 그 기록의 운명이 정해짐. 시스템 만들때부터 보존년한도 미리 정해져야 시스템으로 구현될 수 있음. 그래서 비어있는 슬롯같은 창고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함. 또 하나는 누구한테는 중요하지만 누구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수여부를 떠나 NoSQL처럼 가는 것도 좋을듯함. 그래야 슬롯을 조금 늘리거나 줄이거나 맘대로 바꾸거나 하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음. (오효정 교수)
 -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여부를 떠나 파일에 저장된 내용이 중요함.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원문을 보지 않는 한 아무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. (오효정 교수)
 - 포맷은 머신리더블한 포맷으로 구성되어야 하고, 메타도 현재는 필요하지만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수도 있고, 향후 필요한 메타가 있을수도 있으므로 가변적인 DB구조를 갖는 것도 중요함. (오효정 교수)